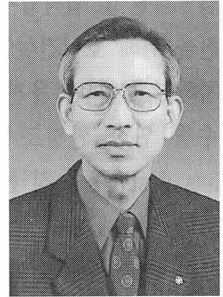


안전은 기본의 실천에서 부터.....



대한산업안전협회
기술이사 김 영 신

구포 무궁화호 열차 전복사고, 서해 웨리호 침몰사고,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아현동 도시가스과 대구지하철 폭발사고 등 수 많은 대형 참사를 겪으면서 안전에 대한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폭넓게 형성되어 왔으며, 안전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요즘 산업 현장을 들여다보면 적당주의가 되살아나고 있고, 관계자들의 안전의식 역시 그 옛날과 다를 바가 없는 느낌이다.

IMF 환과 이후 경제논리만을 앞세운 무차별한 구조조정으로 인해 산업현장의 안전관리체제는 붕괴되어 버렸다. 문제는 과거의 뼈아픈 교훈을 쉽게 빨리 잊어 버리고 마는 우리들의 의식과 가장 기본적인 안전규칙의 준수를 습관화 내지 생활화하지 못하고 있는데 있다.

이웃 나라 일본은 배관공사를 하기 위한 굴토와 용접, 되메우기 작업 등 현장의 정리정돈이 너무나도 잘 되어 있고 청결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 우리 공사 현장과는 하늘과 땅 같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구나 안전모나 안전화를 착용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현장에서도 철저히 착용하고 작업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또한 미국의 공사현장을 가보면 ASME, NFPA, ANSI, API 등이 기술기준집을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체크해 보고 작업하는 감독자나 근로자들이 볼 수 있다고 한다.

물타르 벽돌은 하루에 5장 이상의 높이로 쌓아서는 아니되며, 배관의 나사산은 몇 cm이상 또는 이하로 깎고, 고정못의 굵기와 길이, 박는 깊이 등 우리가 볼 때 사소한 것들이라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들을 그들은 기본이라 생각하고 스스로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다.

이 처럼 법규도 아닌 민간안전기술기준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말로 안전이 확보되고 유지되는 길이 아니겠는가?

아마 우리 나라 만큼 엄격한 안전관련 법규를 가지고 있는 나라도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마저 무시되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안전은 거창한 슬로건이나 탁월한 이론보다도 가장 기본적인 안전기준을 준수하는데 있다. 안전의 확보는 그 실천에 있다는 것이다. 